

## 海棠花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  
무 일찍 왔나 두려합니다.

철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  
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체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입니다그러.

시름없이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  
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 2015 만해축전

### ‘만해와 함께 떠나는 아름다운 만행萬行’



- 주 최 · 만해축전추진위원회
- 주 관 ·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일 시 · 2015. 10. 16(금) ~ 18(일)
- 장 소 · 제1부/심우장(성북구 성북로 29길 24)  
제2부/만해마을(강원도 인제군 북면 만해로 91)

## 모시는 글

만해 한용운은 일제강점기에 불교개혁에 앞장선 선승이자 『님의 침묵』을 남긴 위대한 시인이며, 조국독립을 위해 투쟁한 혁명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심우장의 작은 꽃밭에서 꽃들과 대화하며 '만유萬有의 이법'을 묻고,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을 보듬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해연구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과 성북구청의 협조를 받아 「만해와 함께 떠나는 아름다운 만행萬行」을 주관하게 된 것은 늦은 감마저 없지 않습니다.

모쪼록 심우장의 꽃밭 복원 기념식(1부)과 백담사 순례와 문학강연(2부)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가 사랑했던 꽃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천으로 피어나 우리 모두 그 황금빛 꽃향기에 마음껏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 '마른 국화菊花를 비벼서 코에 대이며' 깊은 상념에 잠겼던 만해가 '자기 생명의 일부'이자 '님'으로 사랑했던 꽃이 가득 피어날 심우장의 꽃밭을 여러분과 함께 복원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고 재 석 합장

## 1부. 심우장 꽃밭복원 기념식

### 10. 16. 금

15:00-15:10	인사말
15:10-15:40	축사 한태식(보광) 동국대학교 총장 축사 김영배 성북구구청장 축사 유승희 국회의원
15:40-16:10	문학강연 고재석 동국대학교 교수
16:10-16:40	꽃밭 복원 기념식
16:40-17:00	기념촬영
17:00-18:00	시낭송 문태준 시인 윤고는 소설가 문화공연 클래식 기타공연 현여울

## 2부. 백담사 순례와 문학강연

### 10. 17. 토

08:00-08:30	만남 동국대학교-만해광장
09:00-13:30	동국대학교-만해마을
13:30-14:30	점심공양
14:30-17:30	백담사 순례
17:30-18:00	문학강연 장영우 동국대학교 교수
18:00-19:00	저녁공양
19:00-20:00	문화공연

### 10. 18. 일

08:00-09:00	기상
09:00-10:00	아침공양
10:00-11:00	만해체험 글쓰기
11:00-11:30	기념촬영
11:30-12:30	점심공양
12:30-13:00	수료식
13:00-16:00	만해마을-동국대학교